내각·빅3 호남 인사 들어갈까

〈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 靑, 설 이후 중폭 개각 단행

국민 역량 결집 '통합형' 구성 절실

청 수석·비서관 기용 여부도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설 이후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형 내각 구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중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조기 개각설'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다만 "굳이 얘기하면 (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주에 4대 권력기관장과 청와대 개편을 먼저 단행한 뒤 다음 달 초반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단계적 개편설'이 무게를 얻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교체가 확실한 분위기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유임이 유력했지만 '그림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진용도 일부 개편 가능성이 높다.

일단 비서진 교체는 최소한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지만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포함, 수석급 2~3명과 일부 비서관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핵심 권력기관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호남인맥의 중용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데다 청와대 수석 가운데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단1명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의 핵인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에 호남 인맥이 기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과 청와대의 소통 채널이 단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호남 인맥의 중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설 이후에는 6~7개 부처의 중폭 이상의 개각이 점쳐진다. 유력 대상은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다.

당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는 확실해 보이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와 관련해 '경제팀 수장'이라는 책임과 집권 2년차의 원활한 경제정책을 위해서라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정원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교체도 유력하며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1년차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전남 인맥은 장태평 농림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적, 정치적 탕평 개각에 나서며 호남 인맥을 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호남 출신의 김황식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이 아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래도 되나? 13일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골프 외유' 연일 신경전

상임위별 해외 출장 계획 줄줄이 취소

민주당 의원들의 '골프 외유' 파문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 골프 파문으로 국회 각 상임위의 해외 출장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을 들고 난동을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해외 원정 골프라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회기에 지장을 주지 않은 채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냈던 일을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전초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특히 민주당은 해외 골프 파문을 계기로 내부 '군기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골프 외유에 대해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이날 저녁 각 의원실에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의 '골프외유' 파문이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의 해외출장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먼저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미국과 멕시코 출장을 취소한데 이어 교육과학기술위도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 로스쿨 시찰 계획을 취소했으며, 기획재정위도 미국 하와이와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또, 지식경제위도 1주일 일정의 호주, 필리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한나라 개각설에 촉각

홍준표 입각 땐 지도부 교체

친박 인사 중용할 지 미지수

개각이 설 이후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한나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격 기용된다면 당의 진용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의 자리 이동이 현실화된다면 당 차원의 대대적인 지도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당내 인사들의 발탁이 가능한 부처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등을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는 홍준표 원내대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이범관 의원 등의 이름이 당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예결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군에는 임태희 정책위원장과 최경환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여야간 대화 채널인 특임(정무) 장관에는 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여야의 대격돌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 인사를 개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중용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탕평 인사를 통해 당내 화합을 담보하고, 이를 계기로 집권 2년차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박 인사의 전격적인 발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 프 로 필 /

매사 사려 깊고 판단력 정확

신상규 광주고검장 집념과 강직함을 갖춘 전형적 수사검사 스타일로, 매사에 사려깊고 정확한 판단력을 발휘해 후배들로부터 덕망이 높다.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장검사 재직시 공안사건인 이른바 '북풍사건'을 무난히 처리했다.

▲강원 철원(60·사시 21회) ▲서울대 법대 ▲원주지청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목포지청장 ▲서울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지 김 살해 은폐사건' 지휘

박영렬 광주지검장 활달한 성격에 개혁성과 강인함을 두루 갖췄으며, '검찰 빅4'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로 내부 신임이 두텁다. '수지 김 살해 은폐 조작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 하남(52·사시 23회) ▲서울대 법대 ▲춘천지검 부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공보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서울남부지검장